

地方(수도권의 지역)大學 育成 방안

金 滌 塚

(啓明大 心理學科)

- ◇ 교육개혁심의회 제3분과(고등교육)에서는 고등교육 개혁 ◇
- ◇ 을 위한 7개 정책 과제를 연구, 지난 2월까지 심의·종결 ◇
- ◇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7개 정책 과제 중 대학과 대학원 ◇
- ◇ 교육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다룬 의결 주문 및 배경에 관 ◇
- ◇ 한 주관 전문위원들의 기고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1. 育成의 當爲性

本稿에서는 教育改革審議會 제34차 전체 회의에서 채택한 ‘地方(수도권의 지역) 大學 育成 方案’을 배경적인 내용 설명을 같이 첨가하면서 제시해 본다. 채택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을 개진하기에 앞서 우선 여기에서는 地方大學 育成의 當爲性 그리고 基本方向을 먼저 檢討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社會·政治·文化·經濟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울 集中現象이 지나치고 있다. 서울의 면적은 남한 국토의 0.6%이나 몇 가지 예만 든다 해도 人口는 23%가 집중되어 있고 문화 시설의 55%, 전국 예술 행사의 72% 그리고 전국 출판물의 9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울 집중 현상은 우리의 歷史的 背景과 產業社會化에 의한 人口의 대도시 집중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만약 政策的 決斷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나

타나는 結果는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高等教育도 예외는 아니다. 지나친 數의 大學과 大學人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政府는 1978년 이후 수도권 인구 분산 시책의 일환으로 소위 地方大學 育成施策을 추진하고 있다. 즉 首都圈內 大學 新設 및 學生增員 抑制, 地方 國立大學에 施設投資 擴充 및 서울 所在 大學의 地方 移轉을 장려하였는데, 그 결과 地方大學은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教授나 內部施設 등 質的 教育條件과 卒業生의 就業 면에서 서울 소재 대학과 상당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高等教育의 서울 집중 현상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逆機能으로 작용함은 말할 것도 없다. 教育機關의 서울 집중 현상은 서울 誘因에 작용하는 教育外 여러 요인의 結果인 면과 동시에 그것은 또한 서울 집중 현상에 작용하는 한 고리의 先行要因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都市의 mammosa 化가 자초하는 문제를 여기에

서 재론할 필요는 없었다.

둘째로 고등교육의 서울 집중 현상은 地域間 不均衡, 즉 隔差를 초래한다. 모두가 서울에 몰려 大學教育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教育機會 면에서 不平等이 생기게 되며 投入條件의 갖가지 측면에서 不平等은 필수적으로 부수한다. 資源의 合理的 配分이 요청된다.

셋째로 대학의 서울 집중 현상은 社會·政治·文化 등 각 영역에서 地域間 均衡 發展을 저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각종 統計는 갖가지 면에서 서울의 엄청난 偏重을 보여주고 있지만 要素相互間의 集積 利益을 고려한다면 서울外 地域의 相對的 落後性은 統計比率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다. 高等教育은 地域文化를 傳承·啓導해 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大學의 서울 편중은 결과적으로 地域別 住民文化의 創達·開發을 지연 내지 은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地方(수도권의 지역)大學 育成方案’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을 설정하고 있다. 즉 ‘首都圈 人口集中 防止와 分散이라는 消極的 의미보다는 각 지역 주민의 教育隔差 解消와 資源의 合理的 配分을 통한 地域間 均衡 發展이라는 積極的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首都圈外 地域大學 育成施策을 보강하는 육성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社會, 經濟 등 여러 방면에서의 地方化와 관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大學教育의 調和로운 均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育成方案

육성 방안은 大學의 運營·管理, 우수 학생의 유치·개발, 우수 교수의 유치·개발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 등 4가지 領域으로 나누어 提示하고 있다.

이제 이들 각기에 대한 育成方案의 內容, 간단한 背景 資料 또는 보충적인 설명을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大學의 運營·管理

(1) 地域別 協同 및 特性化

〈제안 1〉 일정 지역별로 地域別 大學發展委員會를 구성하여 대학 발전에 대한 協力·支援體制와 大學間協同을 강화·추진한다. 그리고 개별 대학은 이 문 중심으로 협동할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의 機能 분화 내지 役割 분담을 도모토록 한다.

○大學의 분포 상황에 따라 地域別 大學發展委員會(가칭)를 둔다. 地域別 大學發展委員會는 지역별 대학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地域內 大學發展을 위한 제원 확충, 대학과 산업체 및 行政·社會團體들간의 협동 체계 강구, 自律的인 質 管理 그리고 大學間 協同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個別大學들은 지역별 대학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大學 또는 大學內의 系列·學科들을 特性化함으로써 大學의 기능 분화 내지 역할 분담을 도모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首都圈(경기 포함)에는 전국 103개 4년제 대학 중 47개 大學(37%)이 있고 학생 수도 약 47만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반 수가 있으며 地方大學은 教授, 學生 등의 量·質 水準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이르러 政治的인 측면에서는 地方自治制 그리고 產業的인 측면에서는 地方産業의 圈域化 推進 등으로 地域間 均衡 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제 高等教育 측면에서도 지역간 균형 시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全國을 몇 개의 大學區로 編制하여 地域別로 大學發展委員會를 둔다. 그러나 編制 및 委員會의 構成, 權限 그리고 責任 등에 관한 구체적인 內容은 더욱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능한 示唆點만은 간추려 볼 수 있겠다. 大學區를 서울, 인천 및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구 및 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의 11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우선은 전체 4년제 大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大學發展委員會는 大學(校) 總(學)長과 기타 많은 大學人은 물론 產業體와 地域의 行政·社會團體들의 지도적인 인사로 구성·운영하며 적

결한 수의 部署를 둔다. 委員會는 세 가지의 성격 내지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自律的 協議機構이다. 大學이 社會的 公器로서 받게 되는 壓力과 期待가 커짐에 따라 大學은 自律과 自治를 요청하면서도 公共性과 質的 管理라는 차원에서 政府의 干渉·간섭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大學의 自律性과 政府의 統制를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해진다. 自律的 協議機構는 大學을 開放하고 責務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自律的 評價 내지 評價認定機構이다. 委員會는 大學에 대하여 조사·연구·보고하고 국민과 정부에 건의하고 政策에 반영하며 自己評價를 통하여 끊임없이 革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더욱 진진한다면 地域內 大學의 신설이나 增科·增員 등을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기능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하여 수행하는 自律的 評價認定體制로 발전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自律的 教育 與件助成機構이다. 이제 大學은 産業體 및 行政·社會團體들과의 協調關係를 구축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렴함과 동시에 大學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여 호혜적으로 協同함으로써 資源과 人力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大學의 社會的 參與 提高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들은 모두 百貨店式이며 비슷비슷하다는 지적이 많다. 大學發展委員會를 媒介로 하여 개별 대학들은 大學一般 또는 大學內의 系列·學科들을 特性化함으로써 大學教育의 기능 분화 내지 역할 분담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획일적 시각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대학 일반 또는 대학 내의 系列·學科들을 特性化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選別的·持續的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增科·增員과 支援

〈제안 2〉 國立大學의 신설, 대학별 증과·증원 그리고 서울地域 大學의 분교의 신설이나 증과·증원 정책 등은 대학의 地域間 均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앞으로 國·公立大學은 가급적으로 지방 도시 이하에 한하여 신설한다.

○학생 정원을 점차적으로 대학별 교육 여건의 조성 정도에 따라 책정하되 증과·증원은 地域間 均衡 발전을 고려하여 首都圈外 地域大學 中心으로 실시한다.

○首都圈을 중심한 서울地域 大學들의 기존의 분교들은 제 2 교사로 編制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울地域 大學의 분교 신설과 증과·증원에서는 서울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특별히 감안한다.

○私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地域間 均衡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를 육성 하되,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國·公立 大學에서 필요한 학과를 보완 육성한다.

大學의 서울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大學教育에 대한 접근 기회를 지역적으로 균 등화하여 社會的 不平等을 최소화하고 大學教育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均等化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大學이 대도시의 毒점들 같은 인식도 불식되어야 한다.

1978년 人口疎散政策의 일환으로 채택된 地方 大學育成策은 人口의 서울 집중을 억제하면서 首都圈內 大學新設을 억제하고 增員을 금지하며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을 권장하였다. 1978~'80년 3년 사이 地方分校를 설립하거나 제 2 校舎로 이전한 대학이 12개 大學에 이를 만큼 分校熱風이 일어났다. 그러나 1981년에 와서 서울 소재 대학에도 增員을 허가하게 되자 地方分校의 설립 움직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 지역 대학의 地方分校들은 거의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중심한 京仁地域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大學의 地方分散과 이를 통한 大學의 均衡 配置라는 政策目標에 어긋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地域 大學의 分校 新設과 增科·增員에서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특별 배려하는 基準은 地方分校의 活性化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地方分校의 육성 문제는 해당 지역에 이미 所在하고 있는 地方大學과 地域 社會의 요청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 3〉 私學金庫制度를 설치·운영하되 首都圈外 地域大學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각 國·公立大學(校)이 특성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法的 設置根據를 가지게 한다.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間의 재원 조달상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私學金庫制度를 設置·運營하며 首都圈外 地域大學을 우선 지원한다.

○각 國·公立大學(校)들이 특성을 살림은 물론 지위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法的 設置根據를 가지게 한다.

국민 대다수는 高等教育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投資와 平準化의 質的 水準을 희망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大學들의 水準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均衡적인 教育投資는 필수적이다. 특히 政府는 私立大學의 教育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財政的 支援策(예컨대 私學金庫制度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재정적 지원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個別大學이 일정 분담금을 부담케 함으로써 自救的 教育發展 노력과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公·私立大學間 授業料 隔差는 횡적 형평뿐만 아니라 종적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受益者 負擔의 原則이 擴大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國立大는 法的 設置根據가 '서울大學校 設置令'과 '國立學校 設置令'의 두 가지로 二元化되어 있다. 이는 각 국립대들이 地位上 均衡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이외의 國立大는 제도나 활동이 획일화되어 獨自的인 發展을 하는데 逆機能하고 있다.

2) 優秀學生의 誘致·開發

〈제안 4〉 首都圈外 地域大學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獎學金 財源을 확충하며, 정부는 국비 장학금 및 학자금 용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이를 서울外 地域大學에 우선 배정한다.

○高等學校 卒業者 중에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장학금이 비교적 많은 서울地域 소재 대학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학생들을 서울外 地域 所在大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장학금 재원을 확충하며, 특히 지방 자치 단체 및 산업체의 장학금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장학금 수혜와 취업이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국비 장학금 및 학자금 용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外 地域大學에 우선 배정하며, 특히 당해 市·道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가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를 가장 우선하여 지원한다.

世評에 의한 현재의 大學序列은 特性化나 教育力의 서열이 아니라 입학하는 學生 水準의 서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85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大入學力考査의 平均 點數는 전국 평균 208점에 서울이 217점으로 제일 높고 충청과 강원 지역이 199점으로 제일 낮다. 地方大學은 우수 학생의 유치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많은 地方出身 高卒者는 首都圈外 地域大學이나 빠져서라기보다는 졸업 후에 닥쳐올 就業問題와 地方大學 輕視의 社會的 風潮 때문에 서울 지역 대학을 選好하고 있다. 간관·출신 위주의 教育 가치관, 地方産業의 구조적 허약성, 힘스한 노동 시장과 지방대학 경시 풍조의 相乘作用 그리고 企業體의 社員採用方法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獎學金 財源別로 보면 서울 所在 大學과 비교해 보아 地方大學은 등록금 재원 장학금과 校內 및 근로·봉사 장학금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法人, 同門, 公共, 個人獎學金 등을 포함하는 기타 장학금에는 큰 차이가 있다. 地方大學들은 장학금 재원을 확충하고 學生은 政府로부터 生活補助金을 장기로 용자 받을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안 5〉 각 분야의 地域別 發展計劃에는 서울外 地域의 고용 기회 확대를 특별히 배려하며, 아울러 실무실습 경험을 就業과 연계시키고 차별적인 雇傭 政策을 시정하는 등 졸업생 취업 기회의 확대책을 강구한다.

○教育은 물론 경제, 산업, 행정, 과학 등 각 분야에 걸친 地域別 發展計劃에는 地域間 均衡

發展을 특별히 고려함으로써 서울外 地域의 고용 기회의 확대에 기여토록 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체나 정부 투자 기관 등이 大學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定時制로 채용하여 實務實習 經驗을 쌓도록 권장함으로써 實務實習과 學校 學習이 連繫토록 노력한다. 그리고 實務實習 經驗을 쌓은 이들에게는 취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

○서울外 地域大學 出身者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 정책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시기와 채용 방법 등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개발한 就業情報의 전산망을 학교에 연결시켜 進路指導에 활용한다.

地方大學 育成을 통한 大學의 地域的인 均衡 發展을 위한 대책들은 경제, 산업, 행정, 과학 등 각 분야에 걸친 政策과 결합된 소위 綜合政策의 일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정책의 결과로서 서울外 地域의 고용 기회의 확대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地方은 勞動市場이 협소한 뿐만 아니라 就業情報 이용의 불리 등으로 사황이 많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취업 정보의 電算網을 연결하여 진로 지도에 活用하는 방안은 적극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 실습과 학교 학습이 연계되게 하고 이를 졸업 후 취업에 우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3) 優秀教授의 誘致·開發

〈제안 6〉 能力과 業績에 따른 公開教授採用制度를 정착시키며 장학 제단 등이 객원 교수 등의 파견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장한다.

○교수 채용에서는 出身大學이나 地域意識을 불식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 제도를 정착시킨다.

○장학 제단 또는 기타의 團體들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首都圈外 地域大學에서 근무케 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장한다.

○首都圈外 地域大學 教授에게는 정착을 위하여 주택, 기타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教授定員의 確保率은 전국적으로 약 66%이며 地域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한 차이는 별로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博士學位 所持率에 있어서는 55.2% 대 28.4%로서 서울外 地域大學이 크게 열등하며 이러한 현상은 教授의 研究結果나 教授開發支援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地方大學이 우수 교수를 誘致·開發하는 것이 시급함을 지적해 주는 몇 가지의 예에 지나지 아니한다.

公採制度는 公正성과 質的 水準 確保에 기여할 것이지만 동시에 조직의 健康과 效率性도 마찬가지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外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財團 등이 우수 교수를 客員教授로 선발하여 地域大學에 파견하는 일 그리고 우수한 新任教授가 이주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는 便益施設을 제공하는 일 등은 모두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7〉 수도권외의 지역 대학 교수의 연구 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地方大學 教授開發研究費制度를 실시하며 지역별 학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政策諮問 등 奉仕活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조치한다.

○首都圈外 地域大學 教授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教授開發研究費制度를 新設·運營한다. 教授開發研究費制度는 서울外 地域에 소재하는 國·公立 및 私立大學의 교수들의 研究活動을 격려하고 우수 교수를 首都圈外 地域大學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하며 研究業績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는 교수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교수·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首都圈外 地域大學에서의 학습 발표 기회를 확대해 가며 동시에 실적과 능력을 중심으로 地域別 學會活動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 기관이나 정부 투자 기관에서는 전형 위원, 정책 자문 위원, 연구 용역 등의 배경에 있어서 全體 大學 教授 數에 대한 首都圈外 地域大學 教授數의 비율이 일정 범위내에서 지켜지도록 한다.

地方大學 教授들의 연구비 수혜 실적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보아 저조함으로 研究活動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研究費 支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文敎部나 學術振興財團의 연구비의 配定比率을 地方大學에 보다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首都圈外 地域大學 教授開發研究費制度를 신설·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方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業績과 能力에 따라 支援함으로써 교수들의 유치와 연구 활동을 격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이나 政府投資機關에서 전형 위원, 정책 자문 위원, 상담 위원 등을 위촉할 때는 우수한 教授들이 현재 서울에 크게 모여 있고 또한 作業進行上 편리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偏重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地方大學 教授를 배려하는 方向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諸般 教育與件의 改善

〈제안 8〉 首都圈外 地域大學의 教育 및 研究의 內實化를 위하여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産學協同과 情報流通體制의 확립을 도모한다. 그리고 연구용 실험 실습 기기는 지역별로 공동 관리토록 유도한다.

○首都圈外 地域 國立大學에 대한 시설 투자 지원을 계속 강화하되 점차 실험 실습 시설, 도서 시설 그리고 학생·교원 복지 시설 등의 내실화에 역점을 둔다. 서울外 地域 國立大學에 대한 첨단 과학 분야의 실험 실습 시설 투자를 확대하며, 地方 私立大學에 대하여서는 일정 분담금을 자체 분담하는 조건으로 유사한 지원 조치를 취한다.

○地域別 大學發展委員會 아래 산학협동분과를 두어 시설 상호이용, 학생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연계성 유지 그리고 협동 연구의 추진을 촉진한다.

○제반 학술 자료·정보의 수집, 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정보 유통 체계를 확립한다.

○연구용 실험 실습 기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공동 관리한다. 공동관리센타는 지역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학간 협력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이용하며 아울러 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한다.

首都圈外 地域大學은 校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教授·學習의 중심에 해당

되는 시설, 즉 강의실, 실험실, 교수실, 도서관 등의 內實化는 아직도 크게 뒤지고 있다. 地方 國立大學에 대한 施設投資支援을 이 방향으로 계속하여 확대하고, 私立大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 조치로 教育內實化를 이룩토록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高等教育이 산업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의 특성이 고등교육기관의 教育課程에 포함되어야 하며 産業體의 발전과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능을 地域別 大學發展委員會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資料·情報에 쉽고 빠르게 接近할 수 있고 다양한 器機의 活用이 용이하다면 연구 활동의 活性化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안 9〉 대학은 郷土文化를 전승·발전시키고 地域社會를 啓蒙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은 향토 문화를 전승·발달시키는 중심 기능을 담당하며 이러한 기능을 대학 평가의 중요한 한 가지 준거로 활용한다.

○대학은 학습 사회의 중심으로서 지방 행정기관과 더불어 地域社會를 啓蒙·支援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共同努力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당해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지역 소재 대학과 협력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의 기여와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구토록 유도한다.

福祉社會는 地域社會가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방면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때 地域大學은 文化機能을 통하여 교육이 모자라는 다수에게 奉仕機能을 확대함으로써 文化的 遺産을 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傳統文化를 기반으로 새로운 文化를 창조해 가야 한다. 郷土文化를 전승·발전시키는 大學의 中心機能을 大學評價의 한 가지 準據로 활용한다면 지역 속의 大學을 육성하는데 자극이 될 것이다.

大學은 地方化時代에서 지역 사회 발전의 求心的 役割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 地域社會團體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地方行政團體도 당해 지역의 發展計劃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大學과 협력하고 大學에 대한 지원을 강구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